다큐멘터리를 이해하는 방법: 진실과 리얼리티

유현석*

= 국문초록 =

 오늘날 텔레비전에서는 방송되는 많은 교양프로그램(factual entertainment)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큐멘터리와 비다큐멘터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진화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특성과 범위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분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분류 방법의 한계와 제한점을 지적한 후, 다큐멘터리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한 차원의 리얼리티에 관한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다큐멘터리, 리얼리티, 사실적 프로그램

논문 투고일: 2009년 4월 17일
심사일: 2009년 5월 17일 / 2009년 5월 18일
게재 확정일: 2009년 6월 15일

*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hsyoo@sch.ac.kr)
I. 서론

다큐멘터리의 진실성은 오래된 논란거리이다. 1920년대에 최초의 다큐멘터리로 알려진 "북극의 나누크" 그리고 그 후 납탈평양 풀리데스만 원주민의 삶을 담은 "모아나 Moana" 를 만든 플래허티(Flatley)에게 있어서 다큐멘터리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장시간 관찰하고 촬영하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극적인 행동을 촬영을 위해 재연을 부탁했다. 해미사냥 씨, 카약의 속에서 여러 명이 속속 나오는 씨, 이글루를 만드는 씨 등은 재연에 의해 촬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허티에게 있어 다큐멘터리 제작의 핵심은 장기간에 걸쳐 관찰하고 촬영하여 사실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 편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의 왜곡을 우려하여 롱 테이크(long take)를 주로 사용하여 편집의 여지를 최소화하기도 하였다.

동시대 기록영화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며 참여 다큐멘터리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그리어슨(Grierson)은 다큐멘터리의 편집에 의해 완성되는 창조적인 재해석으로 보았지만, 그 역시 다큐멘터리는 "원 재료"는 전례적으로 리얼리티에 기반을 둔 실제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진실은 다큐멘터리를 다큐멘터리답게 '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큐멘터리 장르가 편집계열의 영상물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기록된 내용(이미지와 소리)이 현실(reality)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적어도 현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가정에서이다. 즉, 다큐멘터리와 백선영화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다큐멘터리의 자연 발생적 재료(natural material)를 다룬다는 점이 지적되고, 이런 맥락에서 다큐멘터리는 백선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과 달리,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영상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현실"은 왜 백선에 비해 우월한 범주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이는 현실이 곧 진실(truth)이란 인식에서 기인한다. 백선영화와 달리 관객들은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현실은 실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기에 그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 믿는다.

윌리엄스(Williams, 1976)가 말했듯, 180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객관성과 주관성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객관성의 개념은 결국 "사실(fact)"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좌우되었다. 과학과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 '사실은 또한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증거(evidence)'로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주관적인 해석에서 벗어난 진실 그 자체로 인식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영상은 관객들에게 하나의 사실로 인식되면서, 다큐멘터리는 진실을